

◎ 現代社會研究所는 「국가발전 中·長期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난 1월 27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제 1분과에서 鄭弘燮교수(서울大)의 基調論文 「90년대를 향한 국가발전 진로와 과제」를 비롯한 6편의 논문이, 제 2분과에서 金榮禎원장(女性開發院)의 「여성문제의 현실과 정책방향」 등 6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1월 30, 31일 同委員會의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自生的發展」이라는 주제로 學術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이번 모임엔 30여명의 국내학자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는데, 1부 자생적 발전의 기초, 2부 자생적 발전의 양상과 과제, 3부 자생적 발전의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國際化時代의 民族意識의 정립」을 주제로 한 워크샵이 지난 2월 6, 7일 이틀간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서울大 國際問題研究所가 주최한 이 모임에서는 鄭鍾旭교수(서울大)의 「新國際情報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와 제 3세계」, 朴商燮교수(서울大)의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韓國人의 소비의식」 등의 논문발표를 통해 우리의 민족의식이 外來思潮에 의해 어떤 변모를 겪어 왔으며, 先進祖國 창조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키 위해 방송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韓國經濟學會의 정기 學術大會가 2월 10, 11일 양일간 충남 유성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韓國의 經濟發展—發展의 메카니즘과 成果」란 주제하에 경제학 전분야를 5개 분과로 나누어 趙璣澁교수(高麗大), 林鍾哲교수(서울大) 등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83년도 국내 과학활동자료와 각종 과학통계를 수록한 「科學技術年鑑」이 나왔다. 과학기술

처가 펴낸 이 연감은 제 1부에서 美國·英國·프랑스·西獨 등의 과학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動向을 분석하고, 제 2부에서는 국내 각 기업체의 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정부 出捐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 3부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振興政策을 싣고 각종 과학기술통계를 수록했다(4·6배판 3백 74페이지·비매품).

◎ 50여만 단어가 수록된 獨韓대사전이 나온다. 韓國獨文學會(회장 李裕榮)는 5개년계획으로 獨逸語대사전 「두덴」(DUDEN)을 우리말로 번역중에 있다. 원고료만도 1억여원이 소요되는 이 獨韓대사전 편찬사업은 文敎部의 지원 아래 지난 '82년부터 시작, 늦어도 '86년까지 완간될 예정인데 현재 許昌雲교수(서울大) 등 19명이 번역·집필을 맡고 있다. 독일어대사전 「두덴」은 西獨이 지난 '81년말 전후 처음으로 완성한 것으로 전 6권에 現代語는 물론 과학·의학·스포츠 용어 등 각 분야의 專門用語까지를 망라하고 있어, 이 대사전이 편찬되면 독어독문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은 3천 페이지 안팎으로 포켓판과 대형판을 동시에 낼 예정이다.

◎ 文敎部는 지난 2월 올해 綜合大學校로 승격된 明知大의 초대 총장에 朴一慶씨를, 東義大의 초대총장에 許宗炫씨의 취임을 승인했다.

한편 仁濟大學 학장으로 申東燾 서울 醫大 생리학교수가 선임되어 3월에 취임할 예정이며, 釜山工大 학장에는 李東湖씨가 선임되었다.

◎ 韓國政治外交史學會 창립총회가 지난 1월 18일 延世大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韓興壽교수(延世大), 申福龍교수(建國大) 등을 발기위원으로 하는 이 학회는 한국의 정치와 그 대외관계에 관한 歷史的 研究에 종사하는 학자들 상호간에 학문연구의 專門性을 높이고, 의견교환을 통한 協力增進을 도모하게 된다.